



# 소음 50% 차단 ... 파티션 하나면 조용한 회의실 변신

가볍고 유연해 이동 쉬워  
스마트 오피스에 최적화  
美·중동·아프리카서도 '러브콜'



변용택 세연 대표가 가볍고 설치와 이동이 편리한 '스마트 파티션'의 개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4~5년 전부터 변용택 세연 대표는 불안했다. 20년간 업무 공간을 구분짓는 파티션을 납품해온 그에게 "부서 칸막이를 없애고 자유롭게 소통하며 일하는 '스마트 오피스'가 대세"라는 말이 들려왔다. 일하러 회사 대신 카페 등 공용 공간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란 예기도 많아졌다. 4년 전부터 미국 시카고 가구 및 인테리어 박람회(NEOCON)와 독일 필른 국제가구박람회(IMM)에선 이미 스마트 오피스 관련 가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직장 좌석에서 물입과 소통**  
"직장 좌석에서 일하는 한국의 사무실 분위기도 곧 바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볍고 유연해 어떤 공간도 쉽게 업무 환경으로 바뀌주는 '스마트 파티션' 개발에 나섰다.

스마트 파티션은 철제 기둥에 부직포 패브릭을 끼워 만든 형태다. 크기·모양별로 11개 종류가

있다. 높이가 50cm 정도인 작은 파티션은 기다란 테이블이나 탁자에서 옆자리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회의 등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제품이다. 160cm 높이에 곡면으로 휘어진 파티션을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독립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360도로 동그랗게 파티션을 치면 안쪽에 원형 공간이 확보된다.

스마트 파티션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소통과 물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연하고 가볍기 때문에 집중하고 싶을 땐 고립된 장소를 찾아갈 필요 없이 파티션을 들고와 설치만 하면 된다.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자리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장점 덕분에 출시 4개월 만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mailto: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http://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세연-스마트 파티션 (032)822-7060 △서광알미늄-다기능 SK 은박냄비 (031)357-9338 △한아틀스-몬스터 쿠키 5종세트 (051)714-7200 △알무스 이앤티-전기집진기 에어니아 H30 (02)308-6944

에 공부하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섞여 있는 대형 카페부터 레스토랑, 휴게실 등에서 주문이 몰려들고 있다. 스마트 오피스를 추진한다고 칸막이를 모두 없애다가 물입 공간이 부족해진 기업체도 주요 고객이다.

◆'반대편 소음 50% 차단'  
변 대표가 개발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소음을 차단해주는

흡음 기능이다. 스마트 파티션의 패브릭 부분에 사용되는 부직포 펠트 가공에 특히 공을 들였다. 부직포는 반대편 소음을 40~50%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고속도로 방음벽이나 층간 소음 방지벽에 들어가는 소재다.

부직포 펠트 성형에도 2년을 쏟았다. 사무실 한가운데 뒤도 색채 없을 정도로 세련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다. 그는 "업무 공간에 사용되는 제품은 방음 기능이 확실하고 디자인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내에 부직포 펠트 양면 성형기가 없어 자동차 부품 회사 30~40곳을 찾다니며 양면 성형기를 직접 개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는 개방적인 업무 분위기를 선호하면서 개인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은 미국과 유럽·중동 등을 본격적으로 개척할 계획이다. 그는 "미국 멕시코 러시아 남미 등에서 제품을 선보였더니 반응이 좋았다"며 "이미 중동, 아프리카 국가와는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인천=조아란기자 [archo@hankyung.com](mailto:archo@hankyung.com)

# 美서 '램시마' 파는 화이자 자체 복제약으로 판매 대체?

뉴스카페



레미케이드 복제약 임상완료 셀트리온 美 판매 영향 줄 수도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임상시험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최초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셀트리온 '램시마'(사진)의 미국 현지 판매를 맡은 화이자가 자체 제품을 확보하면서 램시마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미국 임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화이자사는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인플렉시마-화이자'(PF-06438179)를 투여한 환자의 30주 뒤 임상반응 결과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시작 후 30주의 임상반응 결과를 확보했다는 것은 임상시험이 사실상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셀트리온도 2012년 30주 임상반응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 램시마 판매 허가를 신청했다.

다국적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레미케이드는 류머티즘 관절염 등에 쓰이는 항체 바이오의약품이다. 세계에서 연 9조원 이상 판매되고 있다. 2013년 유럽을 시작으로 특허가 끝난 레미케이드

를 셀트리온이 세계에서 최초로 본떠 만든 바이오시밀러가 램시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미국 외 기업으로는 처음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판매 허가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화이자가 수개월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판매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 판매 승인이 떨어지면 화이자의 미국 내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판매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화이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미국에서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셀트리온의 램시마를 팔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에서 램시마 판매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화이자가 하는 임상시험과 관련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미현기자 [mwise@hankyung.com](mailto:mwise@hankyung.com)

# 중기청, 소공인 살리기 팔 걸었다

5개년 육성 계획 발표

문래동 등 밀집 지역에 스마트 제조 환경 구축

서울 문래동 철골구 거리와 종로 귀금속 거리 등 소공인 밀집 지역에 스마트 제조 환경이 구축된다. 소공인을 모아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소셜커머스, 면세점 등에서 판매도 같이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정부가 소공인만을 대상으로 종합 지원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상공인 지원이 주로 전통시장 등 '상인'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엔 '공인'에 초점을 맞췄다.

소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기업이다. 국내에만 99만여개가 있다. 이들의 힘이 담긴 제품을 제작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의 '마치코바'(작은 공장)처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 도시형 소공인 주요 지원계획

소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유도
소공인 혁신자금 200억원 신설(저리 융자)
숙련기술인 양성·기술전수 촉진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인증마크제 시행
소셜커머스 유통 지원
면세점 및 전통시장 전시 판매관 설치
온라인 수출 지원사업 신설

자료: 중소기업청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이번 계획의 핵심은 네트워크 강화다. 단순 공장밀집지역을 산·학·연 협업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현장 밀착지원 거점인 소공인특화센터를 작년 말 기준 36곳에서 2021년 70곳까지 늘린다. 소공인 집적지구도 4곳에서 2021년엔 20곳까지 확대한다. 집적지구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 한 곳당 50억원의 국고 지원금이 나간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생산체계도 구축한다. 소공인 공정을 연계한 생산정보체계를 마련한다. 서로 주문정보를 교

환하고 생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소공인 전용 설비자금 융자 프로그램인 '소공인 혁신자금'도 신설했다. 올해는 200억원을 저리로 빌려줄 예정이다.

소공인 제품에 문화·예술인 디자인을 접목한 '대중명품'도 만든다. 기획·생산·판매까지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수 집적지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대외홍보를 하는 사업도 있다. 카카오톡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소공인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연 매출 50억원이 넘는 독립 온라인몰을 소공인 유통 협력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윤모 중기청 차장은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소공인을 4차 산업혁명 등 제조 혁신에 적극 동참시킬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대를 이어 가업을 하고 기술력을 높이는 소공인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인천광기자 [ahnjk@hankyung.com](mailto:ahnjk@hankyung.com)

# 중진공, 정책자금 브로커 차단 나섰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사진)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브로커를 막을 대책을 14일 내놨다. 정책자금 브로커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상담예약제도를 운용한다. 브로커가 정책자금을 신청할 중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금 신청 절차도 쉽고 간편하게 바꾼다.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해 제출서류 준비 절차를 간소화한다. 융자자금을 신청하는 온라인 페이지에 신청 절차를 설명하는 매뉴얼 동영상

을 게시했다. 전국 31개 중진공 지역본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했다. 정책자금 브로커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브로커를 활용한 중

소기업은 최소 6개월, 최대 3년간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된다. 자금 신청에 부당 가입한 브로커에게는 형사고발과 관련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불법 브로커 신고 포상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조한교 중진공 기업금융처장은 "브로커를 차단해 정책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조아란기자 [archo@hankyung.com](mailto:archo@hankyung.com)

# 까사미아, 생활소품 브랜드 '데일리까사'

가구업체인 까사미아가 실속형 홈퍼니싱 스타일 브랜드 '데일리까사'를 14일 선보였다. 데일리까사는 기존 까사미아 제품 대비 가격대가 저렴하고 다양한 생활 소품을 많이 구성해 놓은 게 특징이다.

까사미아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 '까사온' 가구도 데일리까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까사미아는 이날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사진)과 수원 영통점 두 곳에 매장을 열었다.



## 금리 상승기 재테크 전략은?

# 2017 한경머니 로드쇼

자산관리, 금융투자, 부동산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자산관리 비법을 제시합니다.

1년에 한번 나의 자산관리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b>참가대상</b>	· 자산관리, 주식·금융상품,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b>참가비</b>	· 없음 (발표자료집 무료제공)
<b>1:1 재무상담</b>	· 은행, 보험사의 전문 상담사 배치 (서울: 시흥은행+보험사 / 지방: 해당 지방은행+보험사) · 운영시간 : 13:00~16:20	<b>참가신청</b>	· 홈페이지( <a href="http://event.hankyung.com">http://event.hankyung.com</a> )에서 온라인 신청
<b>문의</b>	·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 02-360-4519,4517		

일자	지역	장소	14:00~14:55 종교로운 도우를 위한 자산관리 토크	15:10~16:05 유망 금융상품 및 투자전략	16:20~17:15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부동산 투자전략
3월29(목)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	조현수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 팀장	신상근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3월7(화)	부산	빅스코 컨벤션홀 104호	정영희 KB국민은행 부산FB센터 부센터장	김경록 미래에셋은행연구소장	김성주 BNK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3월8(수)	울산	울산MBC컨벤션 2층 인텔로홀	장경영 한경생애설계센터장	신현호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장	심형식 영신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3월9(목)	대구	엑스코 211호	김대근 NH농협은행 WMS지원팀 선임연구원	신상근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산센터장
3월14(화)	인천	송도컨벤시아 133호	배종우 KEB하나은행 울림픽션수준FB센터장	신현호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장	임태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3월15(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308호	손기영 삼성생명 후남FB센터 FP팀장	이영길 대신증권 연금사업센터장	최성호 신한은행 부동산자산센터 팀장
3월16(목)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106호	배병식 교보생명 노블리에센터장	김경록 미래에셋은행연구소장	정재호 덕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위 프로그램은 강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주최 한국경제신문